

十味敗毒散가미방 (正顏湯)으로 호전을 보인 지루성 피부염 치험 5례 증례보고

김은진¹ · 류동훈² · 정아람^{3,*}

¹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한방소아과, ²하늘채한의원, ³기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Abstract

Five case reports of Seborrheic Dermatitis Patients treated with Shi Wei Ba Du-San gamibang (Jeongan-tang)

Kim Eunjin¹ · Ryu Donghoon² · Jeong Aram^{3,*}

¹Department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Hospital, Dongguk University Bundang Medical Center

²Haneulche Korean Medicine Clinic

³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Seborrheic dermatitis is a chronic superficial eczematous dermatitis characterized by the redness and dry or greasy squama. This case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he effect of Shi Wei Ba Du-San gamibang (Jeongan-tang) for seborrheic dermatitis by retrospective methods.

Methods

From June 1, 2016 to January 31, 2020, 5 patients with seborrheic dermatitis were treated with Jeongan-tang for 3 months at Oriental Medicine Clinic. We analyzed information and body conditions of 5 patients. Redness, squama, and skin discomfort such as itching were assessed in 5 patients by using VAS (Visual Analogue Scale) score. We evaluated the symptom change by photographs and VAS score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Results

At first, the frequency of flushing and redness was decreased. Secondly, the scaly skin was change to normal state and itching sensation was lessened. After the treatment, the total VAS score was decreased.

Conclusions

Jeongan-tang can be effective in seborrheic dermatitis, and it also can be helpful to regenerate the skin condition as well.

Key words: Seborrheic Dermatitis, Shi Wei Ba Du-San (Jumihaidokuto, Sjmpipaedoksan), Jeongan-tang, Herbal medicine, Case report

• Received: July 20, 2021 • Revised: August 23, 2021 • Accepted: August 24, 2021

*Corresponding Author: Jeong Aram, K.M.D., Ph.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82-32-770-1292, Fax: +82-32-764-9990

E-mail: youi22@gachon.ac.kr

© The Association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지루성 피부염 (seborrheic dermatitis)은 염증성 홍반, 건성 또는 지성의 인설을 특징으로 하는 습진성 피부염으로 주로 두피, 눈썹, 눈꺼풀, 비구순 주름, 입술, 귀 등의 안면부와 액와부, 서혜부 등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한 부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¹⁾. 스트레스, 우울, 피로, 음주, 계절 변화, 세정제 교체, 햇빛 노출, 생리 주기 등에 따라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²⁾ 생활 습관 및 환경을 교정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발적, 가려움, 따가움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루성 피부염은 생후 3개월 이내와 40-70세 사이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³⁾.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화장품의 사용, 미세먼지 등의 외부 자극으로 피부 세포의 DNA 돌연변이, 세포막 및 단백질 손상, 면역 기능 이상 등이 발생하여 소아 청소년 연령층에서도 지루성 피부염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⁴⁾.

지루성 피부염의 서양 의학적 치료로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항진균제 및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¹⁾. 그러나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지루성 피부염의 특성상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루성 피부염의 한약 치료에 대한 증례 보고로 荊防導赤散⁵⁾, 涼膈散火湯, 荊防瀉白散⁶⁾, 消風散과 清肌滲濕湯⁷⁾, 黃連解毒湯加減方⁸⁾, 防風通聖散加味方⁹⁾ 등이 있었으나 十味敗毒散¹⁰⁾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저자는 지루성 피부염 환자 5명에게 十味敗毒散에 石膏를 가한 임상 경험방인 正顏湯을 처방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환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증례 보고로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기관생명 윤리 위원회에서 심의 면제를 승인받았다 (IRB NO. GIRB-20-111).

II. 증례

1. 연구대상

2016년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의원내 안면 지루성 피부염을 진단받고 내원한 환자 중 正顏湯을 12주 이상 복용하여 효과를 보였으며, 치료 종료 3개월 이후 추적관찰 시에도 증상의 재발이 없었던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증례들의 경우 전후 사진 비교 동의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평가방법

치료의 평가는 치료 시작 시점, 치료 중간 시점 (7주차), 치료 종료 시점에 진행하였으며 VAS (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서 비교하였다. VAS에서 0은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10은 증상이 가장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① 객관적 지표의 평가

치료 효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환자 안면 부위의 정면, 좌우 측면을 디지털카메라 (Nikon D5300)로 같은 조명과 조리개 설정 및 동일한 거리에서 촬영하였으며 임상연차 10년 이상의 숙련된 2인의 한의사가 발적 (redness)과 인설 (squama)의 정도를 평가하여 평균값을 기재하였다.

② 주관적 지표의 평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양감, 따가움, 통증 등 자각적 불편감은 환자가 직접 수치를 기록하였다.

2) 치료방법

① 한약 치료

한약 치료는 正顏湯을 기본처방으로 하여 증상에 따라 隨證加減 하였다 (Table. 1). 1첩을 120 cc 2팩으로 추출하여 1일 2회 아침, 저녁 식후 30분 후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한약은 14첩 28팩으로 14일분씩 처방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Jeongan-tang (JAT)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ose (g)
柴胡	<i>Bupleurum falcatum</i> Linné	6
桔梗	<i>Platycodon grandiflorum</i> A. De Candolle	6
防風	<i>Saposhnikovia divaricata</i> Schischkin	6
川芎	<i>Cnidium officinale</i> Makino	6
樺皮	<i>Betula platyphylla</i> Suk	6
白茯苓	<i>Poria cocos</i> Wolf	6
生薑	<i>Zingiber officinale</i> Roscoe	6
獨活	<i>Aralia continentalis</i> Kitagawa	4
荊芥	<i>Schizonepeta tenuifolia</i> Briquet	4
甘草	<i>Glycyrrhiza uralensis</i> Fischer	4
石膏	<i>Gypsum</i>	12
Total		66

② 식이 및 생활 지도

기름진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고춧가루, 후추, 겨자 등 향신료가 많이 첨가된 음식)을 피하고 음주나 흡연을 줄이도록 하며, 주 3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유하였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도록 하였으며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여 세안 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3. 임상경과

1) 증례 1

- ① 성명: 서OO, F/37
- ② 주소증: 양쪽 볼 부위가 가렵고 따가움이 심함, 인설, 좁쌀 모양의 구진
- ③ 발병일: 2016년 11월경 다이어트 양약 복용 후 시작
- ④ 현병력: 볼 부위가 붉고 가렵고 따가워서 피부과에서 세균성 알레르기,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받고 1개월 반 동안 항생제 복용 및 연고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병변 커지고 단단해지는 느낌이라 연고는 중단 후 항생제만 복용하다 증상 개선 안 되어 내원
- ⑤ 악화요인: 스트레스
- ⑥ 전신상태
 - 소화: 양호
 - 대변: 변비, 2일에 1회, 유산균 복용 중
 - 소변: 양호
 - 수면: 양호
 - 한열: 상열감 심함, 추위를 못 참음, 손은 따뜻하고 발은 차가움

- 생리: 생리주기 규칙적, 생리통 없음, 생리량 감소 심함

- 복진: 우 천추 압통

⑦ 치료기간: 3개월 (2016년 12월 28일 ~ 2017년 3월 22일, 2주 간격 총 6회 한약 처방)

⑧ 치료 및 경과

초진 내원 시 콧등, 볼, 턱 등 얼굴 전반적으로 좁쌀 및 작은 화농 등 오토도톨한 염증이 많은 상태로 상열감 및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심하였다. 항생제 복용 중단하고 正顔湯 원방을 1일 2회 아침, 저녁 식후 30분에 복용하였으며 치료 종료 시 얼굴 좁쌀 및 염증 개선되어 피부 매끈한 상태로 소양감, 따가움, 통증 등 자각적 피부 불편감 VAS 9에서 VAS 0으로 호전되었다 (Table 2, Fig. 1).

Table 2. Change of VAS* Score in Case 1

Date	Redness	Squama	Skin discomfort
2016.12.28	8	7	9
2017.02.08	4	5	4
2017.03.22	2	1	0

* VAS (Visual analogu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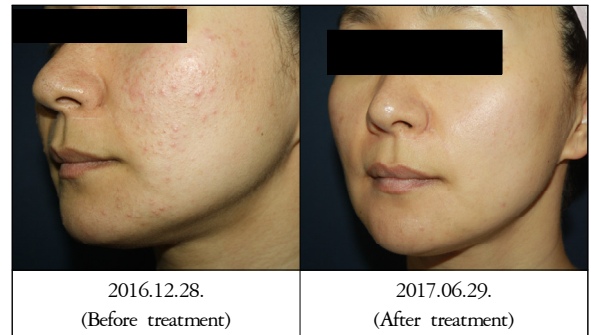


Fig. 1-1. Picture of face (Lt. side) Case 1



Fig. 1-2. Picture of face (Rt. side) Case 1

2) 증례 2

- ① 성명: 신OO, F/20
- ② 주소증: 양쪽 볼과 턱 부분 열감 및 따가움, 두피에 열감 심함
- ③ 발병일: 6개월 전, 특별한 원인은 없음
- ④ 현병력: 2015년 여름경 피부과 내원하여 지루성 피부염 및 접촉성 피부염 진단받고 항생제 처방받아 복용, 소양감 심할 때마다 가끔 처방받아서 복용하였으나 복용 시에만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어 본원 내원
- ⑤ 악화요인: 스트레스, 메이크업 등
- ⑥ 전신상태
 - 소화: 양호
 - 대변: 2일에 1회, 딱딱함
 - 소변: 양호
 - 수면: 입면 시간 30분~1시간 넘게 걸림
 - 한열: 두피에 열이 있는 느낌
 - 생리: 불규칙, 통증 없음, 생리양 감소
 - 복진: 우 천추 압통
- ⑦ 치료기간: 3개월 (2016년 6월 7일 ~ 2016년 8월 30일, 2주 간격 총 6회 한약 처방)
- ⑧ 치료 및 경과

초진 시 아래턱 및 볼 쪽으로 작은 붉은 반점 및 좁쌀이 다량 있으며 피지로 인하여 번들거리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상태였다. 正顔湯 원방을 1일 2회 아침, 저녁 식후 30분에 복용하였고 3개월 치료 후 인설 VAS 6에서 VAS 0으로 호전되어 치료 종결하였다 (Table 3, Fig. 2).

Table 3. Change of VAS* Score in Case 2

Date	Redness	Squama	Skin discomfort
2016.06.07	4	6	5
2016.07.19	1	4	4
2016.08.30	0	0	0

* VAS (Visual analogu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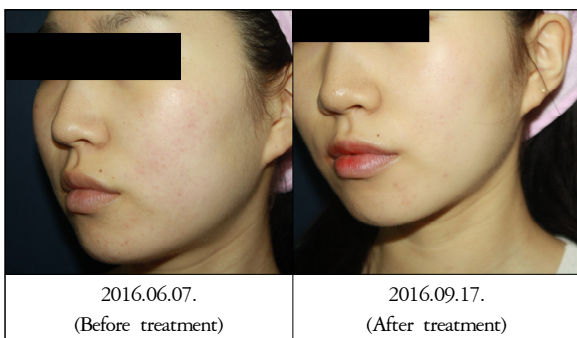


Fig. 2-1. Picture of face (Lt. side) C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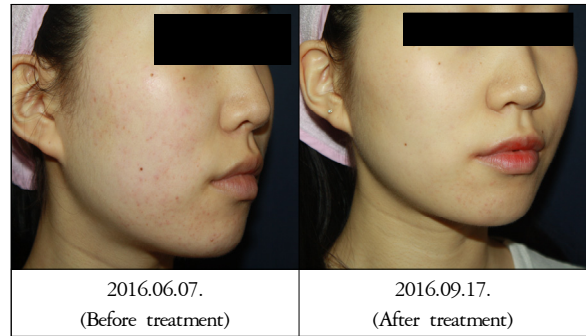


Fig. 2-2. Picture of face (Rt. side) Case 2

3) 증례 3

- ① 성명: 심OO, M/24
- ② 주소증: 코 주변 및 턱에 모낭염 빈발하여 노랗게 농이 자주 생김, 얼굴이 항상 붉고 유분이 많으며 인설 및 각질이 많음
- ③ 발병일: 고등학교 1학년 경 시작
- ④ 현병력: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악화됨, 피부과에서 지루성 피부염 및 모낭염 진단받고 1개월 동안 항생제, 항진균제 복용하다 호전되지 않아서 내원.
- ⑤ 악화요인: 스트레스, 여름철 심화
- ⑥ 전신상태
 - 소화: 양호
 - 대변: 1일 2~3회, 무른 편, 시원치 않음
 - 소변: 양호, 색이 진한 편
 - 수면: 양호
 - 한열: 더위를 못 참음, 열이 머리 위로 확 오를 때가 있음, 얼굴 및 손에 열감
 - 오관: 편도가 자주 부음
 - 복진: 복각 좁은 편
 - 기타: 회사 인턴 하면서 취업 준비 중
- ⑦ 치료기간: 3개월 (2019년 8월 1일 ~ 2019년 10월 30일, 2주 간격 총 6회 한약 처방)
- ⑧ 치료 및 경과

초진 시 이마, 코 부분의 피지 분비 과다로 번들거림이 심하고, 눈썹이나 턱수염 근처에 작은 화농들 많이 있었다. 조금만 활동하여도 안면부 번들거림 및 상열감 심하였으며 여름철 기온 높아지며 자각적 불편도 VAS 9 상태였다. 상열감 및 화농 되는 염증 개선을 위하여 첫 두달간 正顔湯 加 金銀花, 連翹를 1첩당 4g씩 가하여 1일 2회 아침, 저녁 식후 30분에 복용하였다. 또한 턱 부위 잦은 모낭염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치료 도중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안면부 상열감 및 소양감 심화 되어 升麻黃連湯 (葛根 3 g, 甘草 2 g, 薄荷 2 g, 白芷 3 g, 升麻 3 g, 芍藥 2 g, 荊芥 1 g, 黃連 3 g, 川芎 1 g, 麥門冬 3 g, 生地黃 3 g, 茯苓 5 g 14첩 28팩) 2주간 복용하였으며, 이후 주로 호소하던 안면부 상열감 증상 호전되어 다시 正顏湯 加 金銀花, 連翹 4 g을 2주간 복용하고 치료 종료하였다. 치료 후 열감 VAS 8에서 VAS 1으로, 인설 VAS 7에서 VAS 0으로, 자각적 불편감 VAS 9에서 VAS 1로 호전되었다 (Table 4, Fig. 3).

Table 4. Change of VAS* Score in Case 3

Date	Redness	Squama	Skin discomfort
2019.08.05	8	7	9
2019.09.12	3	6	7
2019.10.30	1	0	1

* VAS (Visual analogu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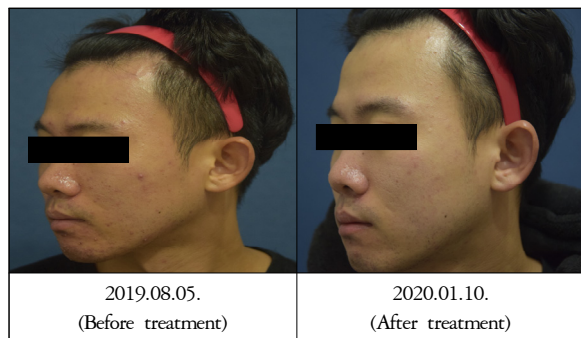


Fig. 3-1. Picture of face (Lt. side) Cas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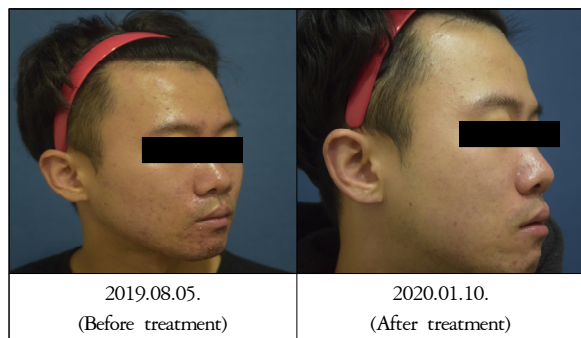


Fig. 3-2. Picture of face (Rt. side) Case 3

4) 증례 4

- ① 성명: 권OO, M/19
- ② 주소증: 안면부 열감, 따갑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 턱 아래와 목 부위 및 얼굴 외곽으로 구진성 염증 및 인설 많음

- ③ 발병일: 중3 이후
- ④ 현병력: 중3 이후 줄곧 지루성 피부염 및 여드름 지속. 2016년 2월부터 2개월간 타 한의원에서 한약 복용 및 치료로 호전되었으나 스트레스로 증상 다시 악화됨
- ⑤ 악화요인: 수면, 스트레스
- ⑥ 전신상태
 - 소화: 소식하는 편, 식후 더부룩함
 - 대변: 1일 1회, 단단한 편
 - 소변: 소변을 자주 보는 편
 - 수면: 잠이 잘 들지 않음. 수면 부족 시 증상 심화
 - 한열: 열이 머리 위로 확 오를 때가 있음, 수족냉증, 추위를 잘 못 참음
 - 오관: 감기 자주, 콧물
 - 복진: 별무
- ⑦ 치료기간: 3개월 (2018년 1월 10일~2018년 4월 20일, 2주 간격 총 7회 한약 처방)

⑧ 치료 및 경과

초진 시 얼굴 외곽 부위 및 턱 아래까지 염증이 번진 상태로 작은 화농들 많으며, 각질 및 인설이 많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 심하였다. 얼굴의 전반적 염증 개선 및 소양감 감소를 위해 正顏湯 원방을 1일 2회 아침, 저녁 식후 30분에 복용하였다. 치료 종료 시 환자의 자각적 피부 불편감 VAS 8에서 VAS 2로 호전되었으며 인설은 VAS 6에서 VAS 0으로 호전되어 치료 종결하였다 (Table 5, Fig. 4).

Table 5. Change of VAS* Score in Case 4

Date	Redness	Squama	Skin discomfort
2018.01.10	6	7	8
2018.02.21	3	5	6
2018.04.20	0	0	2

* VAS (Visual analogu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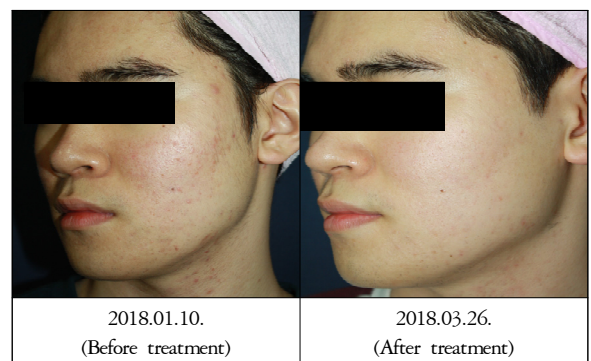


Fig. 4-1. Picture of face (Lt. side) Cas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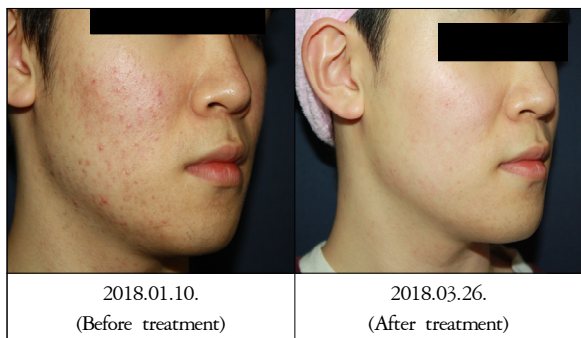


Fig. 4-2. Picture of face (Rt. side) Case 4

5) 증례 5

- ① 성명: 김OO, M/25
- ② 주소증: 안면부 전반적으로 큰 화농 및 좁쌀 형 구진, 염증이 난 부위를 누르면 통증 심함, 지성 인설과 열감 심함
- ③ 발병일: 2016년, 특별한 원인은 없음
- ④ 현병력: 2016년 10월부터 지루성 피부염 및 여드름으로 1개월간 피부과에서 항생제 및 소염제 처방받아서 복용, 2017년 2월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음, 1주일 전까지 2주간 항생제 및 소염제 다시 복용하다가 차도가 없어 내원
- ⑤ 악화요인: 스트레스
- ⑥ 전신상태
 - 소화: 가끔 소화 안 됨, 대체로 양호
 - 대변: 2일에 1회, 변비 경향
 - 소변: 양호
 - 수면: 양호
 - 한열: 더위를 못 참음
 - 오관: 증상 없음
 - 복진: 특이사항 없음
- ⑦ 치료기간: 3개월 (2017년 6월 26일 ~ 2017년 9월 20일, 2주 간격 총 6회 한약 처방)
- ⑧ 치료 및 경과

초진 시 눈썹, 볼, 턱 등 안면부에 좁쌀 형 구진 및 화농 많은 상태로 염증이 난 부위에 통증이 심하였고 눈썹 및 턱수염 주변 인설 많으며 턱 주변에는 자가 압출로 인한 결절형 흉터 많은 상태로 내원하였다. 3개월 간 안면부 화농 및 염증 개선과 작열감 및 통증 감소를 위하여 正顏湯 원방을 1일 2회 아침, 저녁 식후 30분에 복용하였고, 치료 후 열감은 VAS 10에서 VAS 1으로, 인설은 VAS 8에서 VAS 3으로, 자각적 피부 불편감은

VAS 10에서 VAS 3으로 호전되었다 (Table 6, Fig. 5).

Table 6. Change of VAS* Score in Case 5

Date	Redness	Squama	Skin discomfort
2017.06.26	10	8	10
2017.08.07	4	5	6
2017.09.20	1	3	3

* VAS (Visual analogue scale)



Fig. 5-1. Picture of face (Lt. side) Cas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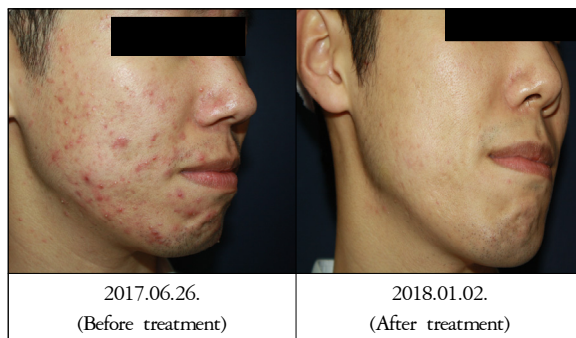


Fig. 5-2. Picture of face (Rt. side) Case 5

III. 고찰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스트레스, 음식, 과음, 수면 부족 등의 생활습관 및 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주 재발하고 만성화되어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¹¹⁾. 피부장벽은 외부의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며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의 과다 분비, Androgen 호르몬, *Malassezia* 진균, 면역학적, 환경적 요소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이러한 요소들이 염증 반응을 야기하면 자각적 분화 이상, 물리적 또는 기능적인 피부장벽 손상을 일으

키게 되고 이것이 지루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¹³⁾. 지루성 피부염은 주로 두피, 눈썹, 눈꺼풀, 비గు순 주름 등 안면부에서 호발하는데, 안면부에서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인설과 홍반성 판을 특징으로 하며 여드름이나 *Malassezia* 모낭염과 함께 동반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¹⁾.

안면부에서 호발하는 다른 피부질환과 마찬가지로, 지루성 피부염은 환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유발함으로써, 삶의 질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측정 결과, 대부분의 피험자에서 중등도의 스트레스, 우울, 피로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나이가 젊을수록 삶의 질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⁴⁾.

지루성 피부염의 서양의학적 치료로 스테로이드제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Malassezia* 균종에 대한 항진균제, 보습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¹⁵⁾. 스테로이드제가 보편적 치료로 사용되고 있긴 하나, 홍반, 혈관 확장, 피부 위축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스테로이드제제의 장기사용은 성장 호르몬 억제를 통한 성장장애 가능성도 보고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¹⁵⁾. 이러한 치료적 한계로 인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부질환의 경우 한의학을 비롯한 보완대체의학 치료가 심리적 만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작용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권장되고 있는 추세이다¹⁶⁾.

한의학에서 지루성 피부염은 白屑風에 해당하며 『外科正宗·白屑風 第 八十四』에 “白屑風多生于頭面耳項髮中, 初起微痒, 久則漸生白屑, 層層飛起, 脫而又生.”라 하여 頭, 面, 耳, 項, 髮中에 가려움이 발생하고, 하얀 각질이 반복적으로 탈락되는 증상이 생긴다 하였다¹⁷⁾. 지루성 피부염은 風熱血燥, 腸胃濕熱로 변증할 수 있는데, 평소 熱體이거나 陰血虛로 인하여 風熱의 邪氣가 外侵하여 작열감, 동통, 소양감, 건조감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風熱血燥로 진단하며, 膏粱厚味나 과음, 과식 등으로 인하여 濕熱이 피부에 蘊積하여서 발생하는 腸胃濕熱으로 변증할 수 있다. 임상 경과를 보면 風熱血燥型은 주로 乾性型, 腸胃濕熱型은 주로 濕性型으로 발현하는데 乾性型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에 크고 작은 斑疹이 있고 인설이 많이 발생하여 養血祛風潤燥를 목표로 消風散加減, 祛風換肌丸, 當歸飲子加減이 활용되며, 濕性型 지루성 피부염

은 악취가 나는 삼출물이 생기고 가피가 두껍게 발생하며 茵陳蒿湯, 茵陳蒿湯合三黃丸, 防風通聖散加減을 처방하여 清熱化濕通腑를 목적으로 치료한다¹⁸⁾.

상기 5례의 증례들은 두부에 집중된 지루성 피부염으로 상열감과 발적이 심하였고, 피부가 화끈거리는 증상, 작열감, 건조감 등을 주소증으로 호소하였으므로 저자는 그 원인을 風熱邪毒로 판단하여 위 증례에 대해 모두 風熱血燥型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하였다. 저자는 十味敗毒散에 石膏를 가한 正顏湯을 기본방으로 사용하였는데, 十味敗毒散은 萬病回春의 荊防敗毒散에서 前胡, 薄荷, 連翹, 桔殼, 金銀花 5가지 약재를 빼고 樺皮를 추가한 처방으로 10가지 약재를 모두 疎風清熱, 瀉火解毒하는 효과가 있어 지루성 피부염, 비듬, 모낭염, 아토피피부염, 습진, 두드러기, 여드름, 주사 등 화농성 피부질환이나 급성 피부질환의 초기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처방이다¹⁰⁾. 또한, 일본의 華岡青洲의 경험방에도 『瘍科方筌 癰疽門』에 “癰疽、及び諸般の瘡腫起りて、憎寒壯熱、愀痛する者を治す”라 하여 癰疽 및 瘡, 腫起 등으로 인해 열이 나며 근육이나 피부가 화끈거리면서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환자의 식사, 소화, 대소변 등의 전신 상태와 상관 없이 風熱로 인한 피부질환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十味敗毒散에 대한 연구로 Antibacterial effect의 효과¹⁹⁾, Estrogen production으로 피지 분비를 유발하는 Testosterone과 길항작용을 하여 피지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효과²⁰⁾, 급성 대장염에서 장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²¹⁾ 등이 보고되어 있어 지루성 피부염에 악영향을 주는 피지 분비 감소, 염증반응 감소를 목표로 十味敗毒散을 기본방으로 처방하였다.

十味敗毒散의 구성약물은 柴胡, 桔梗, 防風, 川芎, 樺皮, 白茯苓, 生薑, 獨活, 荊芥, 荊芥로서, 기본이 되는 처방인 荊防敗毒散에 비해 消腫, 祛痰, 利濕 효능이 있는 樺皮가 추가되어 임상적으로 화농 증상이 뚜렷할 때 사용하는 처방이다^{10),22)}. 正顏湯에 사용된 기타 약물의 효능을 살펴보면, 桔梗은 祛痰排膿효능으로 肺癰吐膿, 瘡瘍膿成不潰 등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약물이며, 면역글로불린 E (IgE) 억제를 통한 피부 소양감 감소 효능이 보고된 바 있다²³⁾. 防風은 解表祛風, 勝濕하는 효능으로 風疹瘙癢을 치료하고, 荊芥와 배오되면 透疹시키는 효능이 강화된다. 獨活은 祛風濕, 止痛, 解表하여 皮膚濕瘍을 치료하고, 柴胡는 和解退熱, 疏肝解鬱, 川芎은 肝鬱氣滯로 인한 胸脇脹痛,

瘡瘍腫毒에 사용되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상열감에 주로 배합하여 사용되는 약재이다. 甘草는 和中緩急하며 解毒하는 효능이 있어서 癰疽瘡瘍 치료 및 解毒藥으로도 작용한다²⁴⁾. 저자는 본 증례에서 石膏를 가미하였는데, 본 논문에 소개된 모든 증례의 환자들에서 안면부 발적 및 소양감, 상열감이 특징적이었으며, 모두 스트레스가 유발 혹은 악화 요인이 된 젊은 환자들임을 감안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火熱이 위로 뜨는 증상이 뚜렷하다고 보아 清熱降火, 除煩止渴 효능이 있는 石膏를 가미하였다²⁵⁾. 石膏는 漢代 『神農本草經』에 “主治中風寒熱, 心下逆氣, 驚喘, 口乾舌焦不能息, 腹中堅痛, 除邪鬼, 產乳, 金創”이라 기록된 약재로²⁶⁾ 황산칼슘수화물 ($\text{CaSO}_4 \cdot 2\text{H}_2\text{O}$)이 주성분이며, 瘡瘍, 濕疹 등 斂瘡生肌 효능 뿐 아니라, 身熱, 三焦大熱, 皮膚熱 등에 대한 清熱의 효과가 있어 임상에서 上焦 風熱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피부의 열감을 감소시켜 재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²⁶⁾. 이에 저자는 十味敗毒散에 石膏를 균약으로 가하여 처방 하였다.

증례 1은 30대 여성으로 평소 上熱下寒 및 변비가 심하고 최근 들어 생리양 감소가 심한 陰血虛 증상을 보였으며, 내원 당시 안면부의 좁쌀모양의 구진과 화농, 발적이 심하였고 건조감, 상열감, 소양감, 따가운 등의 증상이 심하였다. 치료 초반에 상열감 및 발적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중반 이후에 따가운 느낌과 피부 표면의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제반 증상이 호전되었다.

증례 2는 20대 여성으로 두피에 열감이 항상 느껴지며 얼굴이 건조하고 가렵고 따가우며 평소에 변비, 입면장에 등을 호소하였다. 치료 초기에 두피와 안면부로 느껴지는 열감이 감소하면서 안면부 소양감 및 건조한 느낌이 줄어들었고, 이후 인설과 염증이 감소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다.

증례 3은 20대 남성으로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복합적으로 동반되었다. 평소 더위를 못 참고, 안면부 및 손바닥 열감 심하였으며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코 및 턱 주변으로 모낭염이 심하였다. 正顏湯을 기본 방으로 하여 염증 완화를 위한 金銀花, 連翹를 4g씩 가하여 복용하던 중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안면부 소양감 및 염증 심화로 面熱이 심하여 2주간 升麻黃連湯을 복용하였다. 이후 상열감의 빈도와 지속 시간이 감소하여 다시 正顏湯 加 金銀花, 連翹를 4g 복용 하였고, 인설과 각질이 감소하였고 화농되는 염증이 개수가 줄어들면서 치료를 종료하였다. 치료 종결

후에도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음주를 줄이는 등 생활 관리 지속하도록 하였다.

위 증례에서 가미된 金銀花, 連翹는 인체 상부의 염증성 피부 질환에 다용되는 清熱解毒 효능이 있는 약재로서, 병발된 모낭염을 함께 치료하기 위해 가미하였다. 金銀花는 인동과에 속한 인동의 花蕾를 건조한 것으로, 清熱解毒 효능 뿐 아니라, 消腫去膿의 요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連翹는 몰푸레나무과에 속하는 개나리 *Forsythia korana Naka*와 의성개나리 *F. viridissima Lindl.*의 과실로서, 消腫散結, 清心瀉火 함으로서, 上焦의 風熱을 散하여 血熱發斑의 증상에 응용되는 약재이다²⁷⁾. 金銀花와 連翹의 항염증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실험연구는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²⁸⁾, 항균, 미백, 항소양 등의 효과도 보고되어 있어 모낭염이 병발한 증례 3 환자에게 金銀花, 連翹를 가미하여 치료하였다²⁹⁾. 또한 치료 도중 특히 안면부 열감이 심하였고, 이로 인해 소양감 및 염증반응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아 正顏湯 복용 후 升麻黃連湯을 추가로 이어서 복용하였다. 안면부 열감은 동의보감 面間에 面熱로 표현되어 있으며, 面熱者, 足陽明病. 面赤如醉者, 胃熱上熏也 飲食不節 則胃病, 胃病 則氣短, 精神少 而生大熱, 有時顯火上行 毒燎其面이라 하여 膏梁積熱을 원인으로 보고, 그 처방으로 升麻黃連湯을 소개하고 있다. 升麻黃連湯은 升麻, 葛根, 白芷, 芍藥, 甘草, 黃連, 水牛角, 川芎, 荊芥, 薄荷로 구성되어 있으며, 升麻와 葛根은 清熱, 除煩止渴, 白芷는 散風除濕, 消腫排膿, 黃連은 清熱燥濕, 瀉心除煩, 水牛角은 清熱解毒, 涼血, 川芎, 荊芥는 解表散風, 透疹, 甘草는 調和諸藥하는 효능이 있어³⁰⁾, 상열감이 동반된 안면부 피부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므로, 환자의 面熱 증상을 감소를 목적으로 추가 처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면열 및 소양감 감소에 위와 같은 효능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증례 4는 10대 남성으로 내원 시 안면부 열감이 심하고 따갑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과 턱 아래와 목 부위 및 얼굴 외곽으로 구진성 염증 및 인설 많은 상태였다. 치료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안면부 열감과 따가운 증상이 감소하면서 구진성 염증과 인설이 줄어들었으며 제반 증상 호전되어 치료 종결 하였다.

증례 5는 20대 남성으로 지루성 피부염 및 모낭염을 겸하고 있었으며 안면부 열감, 눈썹 및 턱수염 주변으로 작열감, 화농 및 인설이 많은 상태였고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다. 치료 받은 기간이 여름

철이라 치료 초반 완화된 염증소견이 쉽게 재발하여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으나, 치료 후 화농 개수의 감소 및 안면부 열감, 인설과 피부 불편감이 감소하여 치료 종료하였다.

이상의 5례의 증례를 보면 모두 기존에 국소 연고 사용이나 양약 복용 경험이 있으나 별무 차도 및 잦은 재발로 인하여 내원하였다. 스트레스, 감정변화, 계절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당시 안면부 열감과 작열감, 따가움, 소양감이 가장 심하였다. 3개월 동안 한약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치료의 경과에 대하여 살펴 보면 치료 1개월 이내 공통적으로 안면부 상열감의 빈도와 발적의 심한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후 피부의 열감이 내리기 시작하니 건조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인설이 감소하였고 자각적 피부 불편감이 VAS 0~3로 줄어들었으며, 마지막으로 화농된 염종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지루성 피부염이 호전되었다.

상기 증례들을 통하여 지루성 피부염 5례에 正顏湯으로 피부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본 논문은 재발이 잦은 지루성 피부염에서 한약치료만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두부 열감, 인설, 자각적 피부 불편감 모두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체강 대사에 상관없이 두부로 집중된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 완화에 보편적으로 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례라고 생각 된다. 다만 전후 사진 비교 이외에 증상 개선을 확인하는 척도로 VAS만 사용되었다는 점, 피부질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생활습관이나 식이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향후 유분 및 수분, 산성도의 변화 등 보다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하여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증례 보고 및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된 5례의 증례에서 正顏湯을 처방하여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상기 5례의 증례들은 지루 피부염으로 나타나는 상열감, 인설, 소양감, 따가움, 통증 등의 증상에

대한 불편감이 심하였다.

2. 치료를 위해 正顏湯을 복용하면서 치료 초기 안면부의 상열감의 빈도와 발적의 정도가 감소 하며 인설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후 소양감, 따가움, 통증 등의 자각적 피부 불편감이 감소하였고 화농성 염종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호전되었다.
3. 十味敗毒散에 石膏를 가한 正顏湯은 疎風清熱, 瀉火解毒하여 재발하기 쉬운 만성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V. 감사의 글

이 성과는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0R1F1A106197011)

VI. 참고문헌

1. Jung JY. Medical skin care. Seoul: MD World. 2010: 189-90.
2. Peyri J, Leonart M. Clinical and therapeutic profile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seborrheic dermatitis. Actas Dermo-Sifiliograficas (English Edition). 2007;98(7): 476-82.
3. Jung JY, Han KH. Common skin diseases in Korea. 1st ed. Seoul: MD world medical book Co,Ltd. 2009: 144-50.
4. Giang J, Seelen MAJ, van Doorn MBA, Rissmann R, Prens EP, Damman J. Complement activation in inflammatory skin diseases. Front Immunol. 2018;6:639.
5. Lee HK, Lim JW, Yang DJ. Four cases of Seborrheic dermatitis patients treated with Soyangin Hyeongbangdojok-san.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6;29(3):249-58.
6. Shin YJ, Lee JW, Kim YE. Five cases of Seborrheic dermatitis patients treated b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5;28(4):142-55.

7. Bae HJ, Jo GW, Choi YJ, Heo ES, Hwang CY. A Clinical Report of Seborrheic Dermatiti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4;27(4):200-8.
8. Kim MG, Hwang MJ. Three cases of Seborrheic dermatitis treated by Hwangryunhaedok-tang gagamb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4; 27(1):140-8.
9. Koo JS, Seo BI. A case of Seborrheic dermatitis treated by Bangpungtongsungsangamibang. *Kor J Herbol.* 2016;31(2):1-5.
10. Explanation of the most used herd medication - Jumihaidokuto: Tsumura Medical Today [Internet]. Tsumura corporation [Updated 2009 May; cited 2020 Sep 1]. Availabel from: <http://medical.radionikkei.jp/tsumura/final/pdf/090520.pdf>.
11. Min SH, Yang WL.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borrheic dermatitis. *J Korean Med Assoc.* 2017;60(5): 409-16.
12. Cha JH, Kim YB, Nam HJ, Kim HJ, Park OS, Kim KS. Recent advances in the Seborrheic dermatiti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6; 19(3):118-33.
13. Schwartz JR, Messenger AG, Tosti A, Todd G, Hordlinsky M, Hay RJ, Wang X, Zachariae C, Kerr KM, Henry JP, Rust RC, Robinson MK. A comprehensive pathophysiology of dandruffand seborrheic dermatitis: towards a more precise definition of scalp health. *Acta Derm Venereol.* 2013;93(2):131-7.
14. Peyrí J, M Lleonart. Clinical and therapeutic profile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seborrheic dermatitis. *Actas Dermosifiliogr.* 2007;98(7):476-82.
15. Allen DB, Julius JR, Breen TJ, Attie KM. Treatment of glucocorticoid-induced growth suppression with growth hormone. *National Cooperative Growth Study. Clin Endocrinol Metab.* 1998;83(8):2824-9.
16. Chin HW, Jang HS, Jang BS, Jo JH, Kim MB, Oh CK, Kwon KS, Kwon YW. A study on utiliz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for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Korean J Dermatol.* 2005;43(7):903-11.
17. Jung WG, Lee CH. Clinical study and recall antigen test in Seborrheic dermatitis. *Korean J Dermatol.* 1988; 26(6):854-60.
18. Go US, Kim GJ, Kim NG, Kim YB, Kim JH, Kim HT. Text of traditional Korean dermatology & surgery. *Korean Dermatology & Surgery books publish Association of colleage of Korean medicine.* 2007:362-5.
19. Higaki S, Nakamura M, Morohashi M, Hasegawa Y, Yamagishi T. Activity of eleven Kampo formulations and eight Kampo crude drugs against propionibacterium acnes isolated from Acne patients: retrospective evaluation in 1990 and 1995. *J Dermatol.* 1996;23(12):871-5.
20. Tohno H, Horii C, Fuse T, Okonogi A, Yomoda S. Evaluation of estrogen receptor Beta binding of pruni cortex and its constituents. *Yakugaku Zasshi.* 2010: 130(7):989-97.
21. Sreedhar R, Arumugam S Karuppagounder V, Thandavarayan RA, Giridharan VV, Pitchaimani V, Afrin MR, Harima M, Nakamura T, Nakamura M, Suzuki K, Watanabe K. Jumihaidokuto effectively inhibits colon inflammation and apoptosis in mice with acute colitis. *Int Immunopharmacol.* 2015;29(2):957-63.
22. Jung JY, Jung HA. Effect of Phellinus igniarius quel extract on the anti-inflammatory, anti allergy, anti-oxidant, anti-wrinkle reaction.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0;23(3):42-65.
23. Ha MA, Kim JW, Lee SW, Chun HS, Cho YS, Shin YW. Anti-pruritic effect of ethanol extracts from *platyodon grandiflorum* and its fermented production in scratching behavior mouse models. *Kor J Herbology.* 2014;(6): 65-173.
24. The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herbology. *Korean herbology.* Seoul:Younglimsa. 2012:181-940.
25. Chu HM, Sin YS, Park CJ, Lee GS, Hwang EH, Kim JH. Literature review on the heat-clearing and fire-purg-ing effect of *Gypsum fibrosum*. *Korean Herb. Med. Inf.* 2014;2(2):89-96.
26. Sin MG. *Essential clinical herbology.* Seoul: Young Lim Sa. 2010:374-6.
27. Kim SY, Park YK. Ethanol Extract of Forsythiae Fructus Inhibits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in LPS-stimulated BV-2 Microglial Cells. *Korea J Herbol.* 2008;3(3):93-102.
28. Lee DE, Lee JY, Kim YW, Kwon YK, Byun SH, Shin SW, Suh SL, Kwin TK, Byun JS, Kim SC. Inhibition of lipopolysaccharide-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TNF- α , IL-1 β and COX-2 expression by flower and

- whole plant of *Lonicera japonica*. Korean J Orient Physiol & Pathol. 2005;19(2):481-9.
29. Bae JH, Kim MS, Kang EH. Antimicrobial effect of *Lonicera* Flos extracts on food-borne pathogens. KoSFoST. 2005;37(4):642-7.
30. Kim IR. Clinical Traditional Herbalogy. Seoul: Younglimsa. 2008:158-728.